

요한 묵시록의 인간 상징*

허 규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1. 요한 묵시록과 상징

1.1. 환시와 상징 언어

1.2. 요한 묵시록의 상징체계

2. 인간 상징의 활용

2.1. 인간 이해와 다양한 상징

2.2. 의복과 관련된 상징

3. 인간 상징의 특징과 의미

3.1. 상징체계의 정점

3.2. 인간 상징과 전례 공동체

나가는 말

* 이 글은 202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 작성된 논문임.

들어가는 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묵시록은 독특한 표현방식과 내용 그리고 그 전달방식에 있어서 특징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묵시문학에 속한다. 묵시문학은 유다교 안에서 비교적 후대에 생겨난 예언문학의 일종으로 여겨지며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종말과 연결시켜 묘사한다. 구약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에 포함시킬 수 있다.¹⁾ 묵시문학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묵시문학에 포함되는 공통되는 요소는 환시를 통한 계시, 상징적인 언어의 사용, 이원론적인 세계관, 종말과 심판에 대한 묘사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²⁾

요한 묵시록은 로마 제국의 열한 번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51-96년) 재위 기간의 마지막인 95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황제숭배 의식의 확장으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를 배경으로 삼는다. 그는 실제로 이전 황제들이 ‘신의 아들’(Divi filius)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에 반해 ‘주님이며 신’(Dominus et deus)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신적인 지위로 끌어올리고 동시에 황제숭배 의식을 확장하고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³⁾ 본문에서는 페르가몬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소아시아 지방에서 순교한 안티파스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 박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 준다(묵시 2,13).

이러한 상황에서 요한 묵시록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희망을 두도록 위로하며 용기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느님의 개입과 악의 세력이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함께 저자는 환시를 통해, 다양한 상징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묘사한다.

1) S. Heid, “Apokalyptik”, in *Lexikon für Theologie und Kirche* I, ed., W. Kasper et al., (Freiburg i.Br.: Herder, 1993), 814-817.

2) H. Giesen, “Christusbotschaft in apokalyptischer Sprache. Zugang zur Offenbarung des Johannes”, *Bibel und Kirche* 39(1984), 47-49; D. Hellholm, “Apokalyptik”, in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I, ed., H.D. Betz et al., (Tübingen: Mohr Siebeck, 1984), 590-591.

3)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시작된 황제숭배 의식은 기원후 3세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소아시아 지방의 도시들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다. 이러한 정책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지만, 그 이유를 막론하고 많은 도시에 황제숭배 의식이 확장되었다. 소아시아 지방에 관한 근래의 연구에서는 하드리아누스 황제(117-138년 재위) 시기에 각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 황제숭배 의식을 따랐던 흔적이 발견된다. Stefan Pfeiffer, “Das Opfer für das Heil des Kaisers und die Frage nach der Praxis von Kaiserkult und Kaiserverehrung in Kleinasien”, i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ed., Thomas Schmeller et. al., *Questiones Disputatae* 253, (Freiburg i.Br.: Herder, 2013), 14-25.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인간 상징이다. 저자는 이것을 통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한 묵시록은 인간과 관련된 상징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전달한다. 특별히 인간 상징은 요한 묵시록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전례의 요소와 결합되어 신학적인 의미를 드러내면서 상징체계의 정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 요한 묵시록과 상징

책의 주제와 기원을 요약하는 표현인 ‘계시’(apokalypsis)는 정관사 없이 사용되어 저자에게 전달된 결정적이지 않은 ‘하나의 계시’를 나타낼 수 있으며(묵시 1,1) 이것은 역사의 한 시기에 구체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환시로 이해될 수 있다.⁴⁾ 또한 책의 서문에서 저자 요한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했다고 언급하며(묵시 1,2) 소명환시에서 역시 환시로 주어진 계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다(묵시 1,11).

1.1. 환시와 상징 언어

저자가 전달받은 계시의 형태가 환시라는 것은 묵시문학을 아우르는 가장 큰 특징으로, 환시를 설명하거나 기록하는 과정에서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저자는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소아시아에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환난을 겪고 있으며, 환시가 전하는 진리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신학적으로 기술한다.⁵⁾ 바카우스(K. Backhaus)는 이런 특징을 “직관적인 신학”(eidetische Theologie)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환시는 동시대의 상징들로 채색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된 신학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만 상징들 이면에는 저자의 신학적인 통찰이 자리한다.⁶⁾

4) S.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Apocalyps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5), 27.

5) Beate Kowalski, “Das Verhältnis von Theologie und Zeitgeschichte in den Sendschreiben der Johannes-Offenbarung”, in *Theologie als Vision*, ed., K. Backhaus, Stuttgarter Bibelstudien 191,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1), 58-59.

6) K. Backhaus, “Die Vision vom ganz Anderen. Geschichtlicher Ort und theologische Mitte der

상징 언어는 직설적이거나 명제적인 언급보다 심화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상징 언어는 기본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생겨난 한 집단의 소통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유대교와 그리스-로마 문화권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소통방식이었다.⁷⁾

빌(G. K. Beale)은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 묵시록에서 소통의 네 단계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어적 단계는 읽거나 들을 수 있도록 본문을 구성하는 것이고, 환시의 단계는 저자가 실제로 경험한 환시로 구성되며, 지시의 단계는 환시에서 본 대상이 특정한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단계에서는 환시의 상징들이 동시대의 사건을 지시한다.⁸⁾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1세기 말 소아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과 관련된 역사적인 상황을 전하면서 상징을 통해 그 시대를 넘어 독자들에게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⁹⁾ 저자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사회 안에서 억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 계시를 환시로 전한다. 하지만 현재의 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있어 난점(難點)으로 작용한다. 그렇기에 환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징의 해석은 요한 묵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¹⁰⁾ 상징은 우선 특정한 시대와 지역, 또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기에 현재에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상징의 다의성(多意性)은 환시의 의미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지만, 이와 반대로 그릇된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¹¹⁾ 요한 묵시록이 전하는 상징의

Johannes-Offenbarung”, in *Theologie als Vision*, ed., K. Backhaus, Stuttgarter Bibelstudien 191,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1), 37-43.

7) H. Giese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Regensburger Neues Testament, (Regensburg: Pustet, 1997), 20-21.

8)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52-53.

9) Jörg Frey, “Die Bildersprache der Johannesapokalypse”,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98(2001), 167-168.

10) U. Vanni, *L'apocalisse*, Supplementi alla Rivista Biblica 17, (Bologna: EDB, 2001), 17.

11) 보링(M. E. Boring)은 요한 묵시록에서 사용된 상징과 언어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리하는데, 특별히 상징 언어는 논리적인 언어와 달리 공식적인 특징을 지니며 그리스도와 관련된 사건을 전하는데 적절한 방식이라고 결론 내린다. M. E. Boring, *Revelation,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89), 51-59.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환시를 전체적인 통일성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며¹²⁾ 그것을 포괄하는 저자의 의도이다.¹³⁾

1.2. 요한 묵시록의 상징체계

요한 묵시록은 환시를 전달하는데 있어 다양한 신화적 표상들을 사용하면서도 많은 부분 구약성경의 개별적인 상징들을 차용한다. 하지만 구약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환시를 전체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개별적인 상징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새로운 환시이다.¹⁴⁾ 저자는 서로 다른 상징들로 직유와 은유를 통해 하나의 환시를 구성하는데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모자이크식 또는 콜라주식 환시라는 표현이다.

요한 묵시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숫자를 사용한 상징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3, 4, 7과 12가 상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 숫자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성경에서 사용되는 비유적인 의미와 맥을 같이 하며, 양적인 의미보다 질적인 의미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¹⁵⁾ 완전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7은 요한 묵시록에서 특별히 중요한 숫자라 할 수 있다. 개별적인 환시에서만이 아니라 요한 묵시록의 전체 구조를 구성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요한 묵시록은 머리말(묵시 1,1-20)과 맺음말(묵시 22,6-21)을 제외하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묵시 2-3장)와 일곱 봉인(묵시 6,1-8,1), 일곱 나팔(묵시 8,2-11,19) 그리고 일곱 대접(묵시 14,6-16,21)의 환시로 구성된다. 저자는 수의 상징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하느님의 뜻을 지시하고 이 세상보다 뛰어난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묘사한다.¹⁶⁾

종말을 중심 주제로 하는 요한 묵시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은 세상과 관련된 것이다. 저자가 사용하는 하늘, 해, 별, 구름과 바다 등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환시 안에서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세상과 관련된 상징은

12) 스몰리(S. S. Smalley)는 요한 묵시록의 환시를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영성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 역시 피해야 할 방법으로 제시한다. Smalley, *The Revelation of John*, 14.

13)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68-69.

14) Peter S. Williamson, *Revelation*, Catholic Commentary on Sacred Scripture, (Lakeawanna, NY: BakerAcademic, 2015), 26-28.

15) Williamson, *Revelation*, 28-29.

16)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58-60.

종말을 묘사할 때에 일상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지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달이 온통 피처럼” 변하며(묵시 6,12) 하늘이 “말리듯 사라져” 버린다(묵시 6,14)는 표현은 일상을 벗어나는, 종말의 두려움을 묘사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¹⁷⁾

이원론적인 주제인 선과 악의 대조를 위해 사용되는 것은 동물 또는 짐승과 관련된 상징이다. 반니(U. Vanni)에 따르면 동물과 관련된 상징은 인간의 역사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역사를 생생하게 만드는 특징을 지닌다.¹⁸⁾ 그렇기에 이 상징은 특별히 악의 세력을 나타내는데 자주 사용된다. 요한 묵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은 어린양으로 일관되게 묘사되는 반면에, 악의 세력은 용, 짐승, 뱀 등으로 언급된다. 종말 때에 일어날 사건들은 두 세력 사이의 전투와 그 결과로 제시되며 그들에게 동조한 이들 역시 같은 심판을 받는다.

환시를 통해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점에서 색은 환시를 채색하는, 곧 환시를 강조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색은 이미 독자들에게 상징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는 독자적인 상징으로 사용된다.¹⁹⁾ 다양한 색을 사용하면서도 단연 강조되고 있는 것은 흰색이다. 요한 묵시록에서 15번 사용된 흰색(leukos)은 해에서 오는 찬란함을 나타내는 색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 하느님의 초월 또는 의로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베르거(Klaus Berger)는 이런 흰색의 표상이 승리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용될 때에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던 ‘정당한 승리’(victoria iusta)에 대한 암시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²⁰⁾

2. 인간 상징의 활용

요한 묵시록에서 앞에서 언급한 상징들 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인간과 관련된 상징이다. 이 상징은 인간의 표상을 사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며 요한 묵시록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17) Vanni, *L'apocalisse*, 34-37.

18) Vanni, *L'apocalisse*, 39-40.

19) Vanni, *L'apocalisse*, 51-52.

20) Klaus Berger, *Die Apokalypse des Johannes I*, (Freiburg i.Br.: Herder, 2017), 543-544.

2.1. 인간 이해와 다양한 상징

인간과 관련된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을 나타내는 것은 이미 구약성경에서도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 역시 이런 구약성경의 전통을 그대로 따른다.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소명 환시이다. 저자는 구약의 예언자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소명을 환시를 통해 전한다. 이 환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으로 표현되며 저자의 사명은 비유와 함께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목소리(phonē)”를 통해 전해진다(묵시 1,10.13). 요한 묵시록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좌에 앉은 어떤 분(묵시 4,2)과 함께 사람의 아들 같은 분(다니 7,13 참조)과 흰말을 타신 분(묵시 19,11)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으로 사용된다. 목소리는 구약성경에서부터 신탁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상징으로(예제 3,12), ‘나팔 소리’, ‘천둥소리’ 등은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발현과 연결시킨다(탈출 19,16; 20,18; 이사 27,13). 목소리와 관련된 유사한 표현은 요한 묵시록에서 50회 정도의 빈도수를 보인다.²¹⁾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몸과 관련된 머리, 얼굴, 다리, 머리카락 등은 환시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상징, 곧 ‘사람의 아들 같은 분’(묵시 1,13 이하)이나 흰말을 탄 전사(묵시 19,11 이하)²²⁾를 묘사한다. 흰 양털 같은 머리카락, 정련된 놋쇠 같은 다리, 큰 물소리 같은 목소리와 태양처럼 빛나는 얼굴, 불꽃과 같은 눈 등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종말 때의 심판을 나타낸다(묵시 1,14-16).²³⁾ 그 외에도 목마름(dipsaō)이나 배고픔(peinaō)처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현상들 역시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나타낸다.²⁴⁾ 특별히 요한 묵시록의 배경과 연결되어 이런 용어들은 구체적으로 박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묵시 7,16)²⁵⁾

인간 표상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요한 묵시록은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

21) D. E. Aune, *Revelation* 1-5, Word Biblical Commentary 52a, (Waco, TX: Nelson, 1997), 84-85.

22) 요한 묵시록에서 기사(騎士)의 이미지는 두 번 묘사된다. 학자들은 묵시 6,1-8에 언급되는 네 기사를 ‘묵시적 기사들’로, 묵시 19,11-16의 환시를 ‘하나님의 기사’로 구분한다.

23)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53-55.

24) Giese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200.

25) 묵시 7,16은 이사 49,10의 인용으로 볼 수 있다. 두 본문 사이의 역사적 배경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구원이 필요한 고통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D. E. Aune,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Waco, TX: Nelson, 1998), 477.

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것을 상징으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 저자의 관심이 다른 무엇보다 인간학적인 요소들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요한 묵시록 안에서 인간의 존재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명’(zoē)은 17회, 그 동사형인 ‘살다’(zaō)는 13회 발견된다. 또한 인간의 활력과 관련된 영혼(psychē)은 7번, 인간 생명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피(haima)는 19번 사용된다.²⁶⁾

더 나아가 인간의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용어들 역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추수, 목자의 일,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 등의 구체적인 활동과 사랑, 혼인, 아이의 출산에 대한 언급이 사회적 관계와 연결되어 언급된다.²⁷⁾ 저자는 이미 구약성경에서부터 사용되고는 상징적인 요소들로 그리스도를 통해 지속되는 하느님의 구원을 암시한다.²⁸⁾

또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상징도 사용된다. 특히 ‘앉아 있다’(kathēmai)는 동사를 활용한 다양한 표현은 요한 묵시록 안에서 72번이나 언급되며, 장소를 나타내는 ‘어좌’(thronos) 역시 신약성경에서의 82번의 용례 중에 47번 발견된다.²⁹⁾

인간의 존재론적 차원만이 아니라 모습, 행위나 활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다양한 활용은 요한 묵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저자의 통찰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2. 의복과 관련된 상징

요한 묵시록의 인간 상징에서 신원이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의복과 관련된 상징이다. 이미 고대 사회에서부터 의복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상징과 연관되어 사회 안에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으며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³⁰⁾ 이러한 상징성

26) 드코크(Paul B. Decock)는 요한 묵시록에서 사용되는 ‘피’를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둘째는 성인들의 피며, 셋째는 종말에 있을 신의 분노와 관련된 피다. 그에 따르면 피는 무엇보다 폭력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피는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하느님의 선물로 정화하는 힘을 갖지만, 반대로 인간의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으로, 창조에 반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묵시 6,10 참조). Paul B. Decock, “The Symbol of Blood in the Apocalypse of John”, *Neotestamentica* 38(2004), 157-160.

27) Williamson, *Revelation*, 28.

28) Vanni, *L'apocalisse*, 41-42, 45.

29) Aune, *Revelation* 1-5, 285.

30) R. Deines, “Kleidung”, in *Theologisches Begriffslexikon zum Neuen Testament*, ed. L. Coenen-K. Haacker, (Witten: SCM R.Brockhaus, 2010), 1176.

은 신약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며 요한 묵시록에서 의복을 나타내기 위해 일관되게 ‘옷’으로 번역되는 himation과 ‘긴 겹옷’으로 번역되는 stolē가 사용된다.

2.2.1.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의 긴 옷(podērēs)

요한 묵시록의 의복과 관련된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에도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묵시 1,9-16은 저자로 언급되는 요한의 소명과 함께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의 모습을 환시로 전한다.

“그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서는 발까지는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또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으며, 발은 용광로에서 정련된 놋쇠 같고 목소리는 큰 물 소리 같았습니다.”(묵시 1,13-15)

사람의 아들에 대한 묘사는 다양한 상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긴 옷’(podērēs)과 가슴에 두른 ‘금 띠’에 관한 내용이다.

‘긴 옷’은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묵시 1,13에서만 찾을 수 있는 용어로(hapax legomenon) 다른 의복에 대한 용례와 구분된다. 이런 이유에서 다수의 학자들은 ‘긴 옷’이 구약성경의 배경에서 영향을 받아 대사제의 복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다니 10,5; 예제 9,2).³¹⁾

빌은 단지 ‘긴 옷’만이 아니라 등잔대 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과 함께 이해할 때에 사람의 아들이 지닌 사제적인 역할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당시 사제들의 임무 중 하나는 성전에서 등잔을 관리하고 필요한 때에 새 기름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등잔대 가운데 있는 모습은 이런 사제의 직무를 연상시키며 의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보충할 수 있다.³²⁾ 또한 옷을 갖추어 입은 모습은 다른 문화권의 신들과 비교될 수 있다. 그들은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나체로 자주 형상화되는 반면 옷을 갖추어 입은 사람의 아들은 특별히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방의 신들과 대조를 이룬

31) 오우네(D. E. Aune)는 이 용어가 칠십인역 성서에서 12번 사용되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다양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옷’ 역시 대사제의 복장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지혜 18,24; 집회 27,8) 요한 묵시록의 저자가 본 환시 역시 대사제의 모습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une, *Revelation* 1-5, 93-94.

32) Beale, *Revelation*, 208-209.

다.³³⁾

이와 함께 가슴에 두른 ‘금 띠’(zōnē chrysa)는 요한 묵시록에서 1,13과, 재앙을 가져 오는 일곱 천사에 대해 묘사하는 15,6에서 총 두 번 사용된다.³⁴⁾ 옷과 금 띠와 관련해서 유사한 표현은 다니 10,5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아마포 옷’과 ‘금으로 만든 띠’가 함께 언급되고 띠를 두른 위치는 ‘허리’로 표현된다. 두 본문에서 띠를 두른 위치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³⁵⁾ 가슴에 두른 띠는 사제들이 가슴에 지녀야 했던 가슴받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탈출 28,15-20) 긴 옷과 마찬가지로 사제적인 역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띠를 두른 정확한 위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금 띠는 구약성경뿐 아니라(1마카 10,89) 다른 근동 문헌에서 임금이나 왕족에게 유보된 상징으로 사용된다.³⁶⁾

반나는 이것이 구약성경의 단순한 반복을 피하며 ‘사람의 아들’이 지닌 두 차원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긴 옷’은 대사제적인 역할을, 그리고 금 띠는 사람의 아들이 이끌어 가는 세상의 역사와 관련된, 곧 통치의 역할을 나타내는 상징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에게 사람의 아들은 왕적인 대사제 그리스도로 이해된다.³⁷⁾

하지만 기센(H. Giesen)은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요한 묵시록의 묘사가 단지 다른 모습들과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의 아들의 탁월함을 나타내려는 의도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며,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사람의 아들의 의미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다.³⁸⁾

금띠에 대한 묘사가 사람의 아들만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사용되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 왕적인 권위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긴 옷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람의 아들이 지닌 대사제적인 역할이 드러난다는 점에서³⁹⁾ 금 띠에 대한 묘사는 구약성경의

33) Gerhard Mai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11, (Witten: SCM R.Brockhaus, 2009), 116.

34) 묵시 15,6은 천사들에 대해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묘사한다. 여기에 사용된 옷은 *linon*으로 신약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으며 일반적인 의미의 의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5) 뮐러(U. B. Müller)는 다니 10,5 이하의 내용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요한 묵시록의 저자가 구약성경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다니엘서의 허리를 가슴으로 바꾸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U. B. Müll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5), 83.

36) Aune, *Revelation* 1-5, 94.

37) Vanni, *L'apocalisse*, 126-127

38) Giese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87-88.

39) Jörg Frey, “Die Bildsprache der Johannesapokalypse”,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98(2001), 172-173.

반복을 피하면서 기센이 언급한 것처럼, 전체의 맥락에서 사람의 아들의 탁월함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2.2.2. 옷(himation)

요한 묵시록에서 옷에 관한 언급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일곱 번 사용된 옷은 우선 색을 나타내는 leukos와 함께 묵시 3,4.5.18; 4,4에서 ‘흰옷’으로 표현된다. 또한 옷은 ‘하느님의 기사’에 대한 환시라 부를 수 있는 묵시 19,11-16에서 심판의 이미지와 함께 두 번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행복선언의 형태로 16,15에서 언급된다.⁴⁰⁾

사르디스 교회에 보낸 편지(묵시 3,1-6)는 옷과 관련된 비유를 사용해서 공동체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다.”(4.5절) 더럽히지 않은 옷은 ‘가르침’을 되새기도록 강조하는 편지의 내용에서 황제숭배 의식과 관련된 종교 혼합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성경에서 ‘옷을 더럽히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상반된 생활방식을 말하는 일관된 상징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징의 배경에는 예수아 대사에 관한 환시를 전하는 즈카 3,1-5가 자리하고 있다. 즈카르야서는 명시적으로 ‘더러운 옷’을 ‘허물’로 표현한다.⁴¹⁾

많은 경우 요한 묵시록에서 옷은 흰색과 함께 언급되는데, 흰색의 상징 안에서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하느님의 초월이나 구원과 관련된다(마르 16,5; 요한 20,12; 사도 1,10 참조). 이러한 경향은 이미 구약성경에서도 발견된다. 다니 11,35와 12,10은 종말에 관한 설명에서 불로 정화되는 이미지와 함께 의인들의 ‘순화’를 말한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회개 만들다’(lbn)이다.⁴²⁾ 흰색은 많은 경우에 ‘밝은’ 또는 ‘찬란한’으로 이해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로마 문화와 유대교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이다.⁴³⁾ 요한 묵시록과 가장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는 유대교 외경의 묵시문학

40) 묵시 16,15는 환시의 맥락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용에서도 머지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는 요한 묵시록과 달리 ‘도둑처럼 간다’, ‘깨어있으라’와 같은 종말론적인 자세를 언급하면서 마태 24,43과 주제를 공유한다.

41) Mai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11, 212.

42) Beale, *Revelation*, 277-278.

43) Aune, *Revelation* 1-5, 292-293.

안에서도 흰색은 밝게 빛나는 찬란함을 나타낸다.⁴⁴⁾

이런 의미를 지닌 흰색과 함께⁴⁵⁾ ‘흰옷’은 요한 묵시록에서 윤리적인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⁴⁶⁾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지시할 수 있으며⁴⁷⁾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닌 개인을 의미한다.⁴⁸⁾ 이것은 스물네 원로를 묘사하는 묵시 4,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스물네 명”은 천상 어좌의 둘레에 앉아있다. ‘흰옷을 입다’에 사용된 동사 ‘입다’(periballō)는 요한 묵시록에서 12번 언급되는데, 반니에 따르면 옷을 나타내는 용어와 함께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 동사 자체가 인간 상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묵시 10,1; 12,1 참조).⁴⁹⁾

2.2.3. 긴 겹옷(stolē)

‘긴 겹옷’은 요한 묵시록에서 5번 언급된다(묵시 6,11; 7,9.13.14; 22,14).⁵⁰⁾ 이 중 세 번은 ‘옷’의 상징과 마찬가지로 흰색(leukos)과 함께 묵시 6,1과 7,9.13에서 ‘회고 긴 겹옷’으로, 그리고 묵시 7,14와 22,14에서는 옷을 빼는 이미지와 함께 표현된다.

“회고 긴 겹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느냐?”(7,13)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7,14)

요한 묵시록에서 ‘긴 겹옷’이 사용된 본문들은 거의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 묵시 7,14는 회고 긴 겹옷을 입은 이들을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신약성경에서 ‘큰 환난’(hē thlipsis tēs megalēs)은 요한 묵시록 외에 종말에 대해 언급하는 마태 24,21에서만 한 번 사용된다. 박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의미의 환난과 비교할 때,

44) Berger, *Apokalypse* I, 422.

45) 흰색을 통한 색의 상징은 요한 묵시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24번 사용된 이 단어는 요한 묵시록에서만 15번 발견된다.

46)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84.

47) Aune, *Revelation 1-5*, 223.

48) Jürgen Roloff,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Züricher Bibelkommentare,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1), 60.

49) Vanni, *L'apocalisse*, 42.

50) 이 용어는 칠십인역 성서에서 일상적인 옷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지만 특별히 사제들과 관련된 본문에서 자주 발견된다(탈출 28-31장; 35-39장; 레위 8장).

‘큰 환난’은 종말 이전에 오게 될 마지막 시련이나 재앙의 시기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의 배경으로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다니 12,1을 생각할 수 있다.⁵¹⁾

요한 묵시록의 배경에서 큰 환난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있을 사건에 대한 언급이라기보다 이미 시작된 박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묵시 1,9 참조). 저자는 어린양, 곧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언급과 옷을 빼는 이미지를 통해⁵²⁾ ‘회고 긴 겂옷’으로 박해를 견디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충실한 신앙인들을 나타낸다.⁵³⁾

반면에 문맥과 내용에서 볼 때, 묵시 6,11에서 회고 긴 겂옷이 주어지는 대상은 순교자들로 이해될 수 있다.⁵⁴⁾ 다섯째 봉인의 환시를 시작하는 9절의 “살해된 이들”(tas psychas tōn esphagmenōn)은 ‘죽임을 당하다’는 11절의 내용과 함께 직접적으로 순교자들을 생각하게 한다.⁵⁵⁾ 하지만 요한 묵시록의 의도가 이미 순교한 이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순교자들, 곧 “하느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지금 박해 받는 이들이 얻게 될 종말 때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⁵⁶⁾ 순교자에 대한 언급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포함할 수 있다(묵시 20,4 참조).⁵⁷⁾

같은 맥락에서 ‘긴 겂옷’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22,14는 요한 묵시록을 정리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시와 함께 종말 이후에 얻게 될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을 말한다.⁵⁸⁾ 옷

51) D. E. Aune,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Waco, TX: Nelson, 1998), 473-474.

52) 요한 묵시록에서 ‘어린양의 피’는 예수의 죽음과 그의 구원 업적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며(묵시 1,5; 5,9; 12,11), 옷을 빼는 이미지는 세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묵시 7,13-14에서 ‘회고 긴 겂옷’을 입은 이들은 세례를 받은 이들로 이해된다. 하지만 옷을 빼는 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회고 긴 겂옷’을 입은 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Giese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99-200.

53) Mai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11, 368.

54) 여기에 사용된 동사(edothē)는 신적 수동태(passivum divinum)로 사용된다.

55) 보링은 묵시 6,9 이하의 내용에서 저자가 64년 네로 황제 치하에서 있었던 일로 전해지는 그리스도교 박해로 인한 순교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Boring, *Revelation*, 124.

56) 일부의 학자들은 ‘회고 긴 겂옷’을 순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천상의 몸에 대한 언급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흰색의 상징과 함께 옷에 대한 표현은 부활, 승리, 구원 등을 나타낼 수 있다. Aune, *Revelation* 6-16, 410.

57) Beale, *Revelation*, 394.

58) 1예측 62,15-16은 종말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상과 함께 ‘영광의 긴 겂옷’을 언급한다. 또한 이 옷은

을 빼는 이미지는 묵시 7,14와 연결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묵시 3,4와 비교될 수 있다. 특별히 묵시 22,14는 요한 묵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행복선언이라는 점에서 박해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들에 대한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면서 그들의 의로운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언급하는 묵시 19,7-9이다. 그들의 의로운 행위는 혼인잔치의 표상과 함께 어린양의 신부로 비유되며 행복선언의 형태 안에서 표현된다.⁵⁹⁾

3. 인간 상징의 특징과 의미

요한 묵시록의 상징체계에서 다양한 사건과 시대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과 관련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미 언급한 인간 상징들 외에도 확장된 의미 안에서 인간과 관련된 표상들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상호 관계를 묘사하고, 요한 묵시록에서 드러나는 긴장과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어 가는 것을 보여준다.

3.1. 상징체계의 정점

요한 묵시록은 전체가 하나의 환시를 통해 전해진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곱 교회에 편지의 형태로 전해지는 묵시 2-3장과 주요 환시를 전하는 묵시 4,1-22,5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환시는 이미 요한의 소명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내가 보는 것”(묵시 1,11)을 의미하며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시로 끝난다. 환시는 종말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교회 공동체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⁶⁰⁾

요한 묵시록의 구조나 의미에서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묘사되는 쟁에 대한 환시는 묵시 12-13에서 정점에 이른다.⁶¹⁾ 이 환시에서 하느님의 권능과 종말에 있을 전투의 대상인 사탄이 명시적으로 소개되며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으로부터 선사되는 ‘생명의 옷’으로 표현된다. 영광과 생명을 통해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Müll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83.

59) Beale, *Revelation*, 1138-1139.

60) Müll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29-30; Roloff,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23-25.

61) Frey, “Die Bildsprache”, 179.

박해의 원인과 주체를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하느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은 다양한 상징을 통해 로마 제국, 곧 로마의 황제권으로 표현된다.⁶²⁾

묵시 12장의 환시를 시작하는 것은 ‘큰 표징’으로 표현되는, 해와 달과 열두 별과 함께 묘사되는 ‘여인’(gynē)이다.⁶³⁾ 여기서도 인간 상징은 묵시 12-13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반니는 특별히 ‘여인’이 요한 묵시록 안에서 갖는 상징성에 주목한다.⁶⁴⁾

요한 묵시록에서 ‘여인’은 19번 발견되는데 그 중에서 3번만이 실제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별히 여인은 성경에서 주로 사랑에 대한 언급과 함께 사용되며, 이러한 특징은 요한 묵시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⁶⁵⁾ 여인은 구약에서부터 지속되어 오고 신약의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을 포함하는 ‘구원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이해된다.⁶⁶⁾ 이 공동체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으며 여인의 후손들, 곧 구원의 공동체에 속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이미 용이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과 싸우기 위해 이 세상에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묵시 12,17 참조).

요한 묵시록은 종말과 심판 그리고 천년 통치를 나타내는 환시와 함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맺는다. 요한 묵시록이 전하는 종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성은 생명수에 관한 환시로 절정에 이른다. 여기서도 확장된 의미 안에서 인간 상징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이 머물고 살아가는 ‘도시’(polis)는 구체적인 인간 삶의 터

62)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싸울 수 있으랴?”(묵시 13,4) 이 수사학적인 질문은 짐승이 지닌 현실에서의 강력한 힘을 나타내면서 구약성경에서 하느님께 사용된 용어와 비교하는 것을 통해 (탈출 15,11) 문학적으로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반대자를 드러낸다. David A. deSilva, “The Strategic Arousal of Emotion in John’s Visions of Roman Imperial: A Rhetorical-Critical Investigation of Revelation 4-22”, *Neotestamentica* 42/1(2008), 10-17.

63) 콜린스(Adela Yarbro Collins)에 따르면 묵시 12장의 여인은 해와 달과 별이라는 상징과 함께 등장하고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곧 메시아를 낳는 것에서 이미 ‘천상의 여왕’과 같은 이미지로 표현된다. 그는 이러한 상징을 이집트의 이시스(Isis) 신화와 비교한다. 이집트에서 이시스는 ‘해의 여신’, ‘하늘의 여왕’ 등으로 불린다. 더 나아가 그는 묵시 12장의 왕권에 대한 용과의 전투 역시 이집트의 오시리스(Osiris) 신화와 비교될 수 있으며 공통된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Adela Yarbro Collins, “Feminine Symbolism in the Book of Revelation”, *Biblical Interpretation* 1/1(1993), 21-24.

64) 반니는 요한 묵시록의 ‘여인’과 요한 복음에서 마리아를 향한 두 번의 ‘여인이시여’라는 호칭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인’이라는 용어를 통해 예수의 어머니는 교회의 어머니로 이해될 수 있다. Vanni, *L’apocalisse*, 342-347.

65) Vanni, *L’apocalisse*, 44-45.

66) Klaus Berger, *Die Apokalypse des Johannes II*, (Freiburg i.Br.: Herder, 2017), 888-892.

전으로 환시 안에서 다른 상징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하지만 완전히 다른, 대조적인 실재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⁶⁷⁾

우선 도시는 환시 안에서 두 축으로 나뉜다. 민족들의 도시(묵시 16,19) 또는 큰 도성으로 표현되는(묵시 17,18) 바빌론, 곧 로마 그리고 거룩한 도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다(이사 62,1-2 참조).⁶⁸⁾ 두 도시는 다양한 상징을 통해 대조적인 이미지를 드러낸다. 바빌론은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⁶⁹⁾ 화려하게 치장한 탕녀의 이미지와 함께 불륜⁷⁰⁾을 저지르는 것으로 소개되는 반면에 예루살렘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⁷¹⁾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온다(묵시 21,2).⁷²⁾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도시는 다시 한 번 여인의 상징으로 구체화되며 고통 받는 하느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묵시 12장의 여인과의 연결된다.⁷³⁾

새 예루살렘은 유다교의 종말에 대한 기다림과 연결되어 있다. 요한 묵시록이 묘사하는 환시는 예제 47-48장의 종말론적인 도시와 성전에 대한 예언을 생각하게 만든다. 예제 48,30-35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하며 그 도성이 바로 “야훼 삼마”(YHWH šāmmā), 곧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표현한다.⁷⁴⁾ 이와 함께 토빗 13,16-14,1의 종말론적인 예루살렘의 모습 역시 요한 묵시록의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보석으로 치장한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업적을 영원이 찬양하는 도시로 표현된다.⁷⁵⁾ 이렇듯

67) Boring, *Revelation*, 219.

68) 로마는 요한 묵시록에서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저자는 여러 상징과 바빌론에 대한 묘사를 통해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일부 학자들은 ‘큰 도성’이 예루살렘을 지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요한 묵시록에서 큰 도성은 이미 14,8에서부터 바빌론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로마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Giese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329-330.

69) 성경 안에서 자주색과 진홍색은 세상의 화려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된다(루카 16,19 참조).

70) 요한 묵시록 안에서 불륜은 하느님과 그 백성의 계약인 혼인관계를 깨는, 우상숭배를 고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71) 어린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특징으로 삼는다. 이미 본문에서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로 표현된다(묵시 19,8).

72)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표현하는 것은 요한 묵시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묵시 3,12; 21,10). 유다교의 묵시문학에서도 어떤 도시가 나타나거나 드러난다고 표현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찾을 수 없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대상은 성경에서 로고스와 하느님의 천사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 정도이다. Berger, *Apokalypse II*, 1403-1404.

73) Frey, “Bildsprache”, 181-182.

74) D. E. Aune, *Revelation* 17-22, Word Biblical Commentary 52c, (Waco, TX: Nelson, 1998), 1121.

75) Gerhard Mai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2-22, (Witten: SCM R.Brockhaus, 2012), 429-430.

구약성경에서 예루살렘을 통해 표현하는 종말론적인 의미 역시 요한의 마지막 환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새 예루살렘은 유다교의 기다림을 수렴하는 상징으로 자리하며 종말론적인 하느님 백성의 도시로 언급된다.⁷⁶⁾

새 예루살렘은 당시의 그리스-로마의 문화권에서 표방하던 이상적인 도시와도 비교될 수 있다. 로마는 도시의 영광과 불멸을 드러내기 위해 ‘영원한 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새 예루살렘’은 도시라는 요소를 통해 신적인 권능과 인간의 자부심을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⁷⁷⁾

3.2. 인간 상징과 전례 공동체

요한 묵시록의 상징체계 안에서 인간 상징은 환시의 정점과 결말에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 인간 상징은 그 자체로도 역사의 흐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측면들을 표현해 주지만, 요한 묵시록이 갖는 전례적인 특성과 함께 신학적인 의미를 한층 강화시킨다. 인간 상징이 수평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전례적인 요소들은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수직적인 차원을 강조한다.

우선 전례에 관련한 내용들은 요한 묵시록의 문학적인 특징을 언급할 때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요한 묵시록의 문학유형을 말할 때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간주되는 것은 편지나 예언서 또는 묵시문학이다.⁷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례적인 특징 또한 본문에서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자주 발견되며 환시 안에서, 특별히 찬가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전례적 요소는 천상적인 것을 지상과 연결시키는, 계시를 전하는 통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 상징은 다시 전례와 연결되며 요한 묵시록의 신학을 표현한다.⁷⁹⁾ 톰슨(Leonard L. Thompson)에 의하면 요한 묵시록은 종말을 천상의 전례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전례 공동체로 드러낸다. 저자가 체험한 계시의

76) Müller,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357-358.

77) 로마를 영원한 도시로 언급하는 것은 헤로도토스(Herodotos)의 글과 1세기 말 로마의 동전에 새겨진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ring, *Revelation*, 214-215.

78) 요한 묵시록의 문학유형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요한 묵시록은 편지, 예언서 또는 묵시문학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학자들은 둘 이상의 문학유형으로 요한 묵시록을 이해하거나, 세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문학유형을 제안하기도 한다. Aune, *Revelation* 1-5, lxx-xc.

79) Vanni, *L'apocalisse*, 47-49.

내용은 찬가와 감사, 그리고 영광과 찬양의 형태로 그리스도교 전례 공동체 안에서 재현된다.⁸⁰⁾ 이러한 특징은 요한 묵시록을 시작하는 머리말(*praescriptio*)의 행복선언에서도 잘 표현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와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묵시 1,3)

여기서 말하는 ‘낭독하는 이’(ho anaginōskōn)와 ‘듣는 이들’(hoi akouontes)은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고대 사회에서 많은 경우에 ‘읽는 것과 듣는 것’이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요한 묵시록의 본문은 분명 전례적인 행위 안에서의 ‘낭독’과 ‘듣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⁸¹⁾

그 대표적인 예는 1,3에 이어지는 묵시 1,4-8이다. 이 내용은 편지의 형식에서 인사(*salutatio*)에 해당하지만 선창자와 응답자의 대화, 곧 찬양과 응답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대화 부분(4-6절)은 “여러분”과 “우리”가 대조를 이루며 전형적인 전례의 요소를 드러낸다.⁸²⁾

선창(4-5절)	지금도 계시고 [...]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응답(5-6절)	우리를 사랑하시어 [...]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선창(7-8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 땅의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응답(7절)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창(8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하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묵시록의 다른 내용에서도 전례 공동체를 암시하는 용어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

80) Leonard L. Thompson, *The Book of Revelation. Apocalypse and Empi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53-73.

81) Aune, *Revelation* 1-5, 20-21.

82) Vanni, *L'apocalisse*, 101-114.

은 바로 ‘교회’(ekklesia)이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반복되는 형태인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는 말씀 역시 공동체에 회개를 촉구한다. 또한 책의 마지막에서 환시로 전해진 계시의 내용을 “교회들에 관한 이 일들”로 표현하며 (묵시 21,16) 계시가 단지 일곱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암시한다.⁸³⁾

책의 마지막에서도 전례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묵시 22,6-21은 편지를 마치는 형식 안에서 공동체에 전하는 권고 후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⁸⁴⁾이라는 환호를 언급한다. 이것은 장대한 마지막 권고에 대한 응답이자 계시 내용 전체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으며 요한 묵시록에서 사용하는 전례의 형식이다. 요한 묵시록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특징짓는 행위인 전례를 통해 구원을 향한 희망을 드러낸다. 이런 전례적인 요소들은 인간 상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신앙으로 박해 받는 이들의 모임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미 전례 안에서 하느님의 개입과 업적은 확신에 찬 찬양과 응답을 통해 표현된다.

나가는 말

환시를 기록한 요한 묵시록은 다양한 상징과 비유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한다. 책 전체의 맥락에서 상징체계를 파악하고 상징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요한 묵시록의 (직관적인)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중에 인간과 관련된 상징은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를 중심으로 환시의 의미를 드러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한, 곧 머지않아 완성될 종말을 향한 여러 사건들의 중심에 자리한다.

인간 상징은 인간의 신체적 구성이나 다양한 활동과 함께 인간 상호 간의 사회적 관계

83) Rainer Kampling, “Vision der Kirche oder Gemeinde eines Visionärs?“, in *Theologie als Vision*, ed., Backhaus, K., Stuttgarter Bibelstudien 191,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1), 129-130.

84) 오우네는 ‘오십시오’(erchou)라는 명령형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신약성경의 본문에서 단순과거(aorist) 명령법이 일반적인 반면에 요한 묵시록은 현재 명령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마라나 타’(우리 주님, 오십시오)라는 아랍어의 문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구약의 전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 Aune, *Revelation* 17-22, 1234-1235.

역시 포함한다. 특별히 요한 묵시록에서 인간의 의복과 관련된 상징은 신원과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을 이들을 표현한다. 또한 여인의 표상은 혼인의 관계 안에서 구원 공동체를, 그리고 비슷한 이미지의 대조를 통해서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박해하고 있는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환시의 정점에 있다. 종말 이후의 새로운 창조는 ‘새 예루살렘’의 환시로 마무리되는데 여기서도 인간의 사회적 활동의 터전이 ‘도시’라는 상징을 통해 하느님과 악의 세력을 대조시킨다.

요한 묵시록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교회’에 전해진다. 일곱 교회로 표현되는 소아시아의 공동체들은 상징적인 의미 안에서 모든 교회를 의미할 수 있다. 요한 묵시록의 교회는 우선 전례 공동체로 표현된다.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이 소통하는 장은 신앙인들의 전례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전례 행위를 통해 신적인 계시가 신앙인들에게 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드러난다.⁸⁵⁾

저자는 인간 상징을 통해 요한 묵시록의 목적인 종말 때에 구원받을 이들을 드러내며 전례 안에서 그것을 구체화한다. 인간 상징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곧 전례 공동체 안에서 절정에 이르며 요한 묵시록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85) Kampling, “Vision der Kirche”, 139-140.

참고문헌

- Aune, D. E., *Revelation* 1-5, Word Biblical Commentary 52a, (Waco, TX: Nelson, 1997).
- _____,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Waco, TX: Nelson, 1998).
- _____, *Revelation* 17-22, Word Biblical Commentary 52c, (Waco, TX: Nelson 1998).
- Backhaus, K., “Die Vision vom Ganz Anderen”, in *Theologie als Vision*, ed., Backhaus, K., Stuttgarter Bibelstudien 191,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1), 10-53.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The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 Berger, Klaus, *Die Apokalypse des Johannes* I, (Freiburg i.Br.: Herder, 2017).
- _____, *Die Apokalypse des Johannes* II, (Freiburg i.Br.: Herder, 2017).
- Boring, M. E., *Revelation*, Interpretation, (Louisville, KY: John Knox Press, 1989).
- Collins, Adela Yarbro, “Feminine Symbolism in the Book of Revelation”, *Biblical Interpretation* 1/1(1993), 20-33.
- Decock, Paul B., “The Symbol of Blood in the Apocalypse of John”, *Neotestamentica* 38(2004), 157-182.3
- Deines, R., “Kleidung”, in *Theologisches Begriffslexikon zum Neuen Testament*, ed. L. Coenen-K. Haacker, (Witten: SCM R.Brockhaus, 2010), 1175-1178.
- DeSilva, David A., “The Strategic Arousal of Emotion in John’s Visions of Roman Imperialism: A Rhetorical-Critical Investigation of Revelation 4-22”, *Neotestamentica* 42/1(2008), 1-34.
- Frey, Jörg, “Die Bildersprache der Johannesapokalypse”, *Zeitschrift für Theologie und Kirche* 98(2001), 161-185.
- Giesen, H.,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Regensburger Neues Testament, (Regensburg: Pustet, 1997).
- Heid, S., “Apokalyptik”, in *Lexikon für Theologie und Kirche* I, ed., Kaper, W. et al., (Freiburg i.Br.: Herder, 1993), 814-819.

- Hellholm, D., “Apokalyptik”, in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I, Betz, H.D. et al., (Tübingen: Mohr Siebeck, 1984), 590-591.
- Kampling, Rainer, “Vision der Kirche oder Gemeinde eines Visionärs?”, in *Theologie als Vision*, ed., Backhaus, K., Stuttgarter Bibelstudien 191,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1), 121-150.
- Kowalski, Beate, “Das Verhältnis von Theologie und Zeitgeschichte in den Sendschreiben der Johannes-Offenbarung, in *Theologie als Vision*, ed., Backhaus, K., Stuttgarter Bibelstudien 191, (Stuttgart: Katholisches Bibelwerk, 2001), 54-76.
- Maier, Gerhard,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1-11, (Witten: SCM R.Brockhaus, 2009).
- Müller, U. B.,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 1995).
- Pfeiffer, Stefan, “Das Opfer für das Heil des Kaisers und die Frage nach der Praxis von Kaiserkult und Kaiserverehrung in Kleinaisien”, i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ed. Schmeller Thomas et. al., *Questiones Disputatae* 253, (Freiburg i.Br.: Herder, 2013), 9-31.
- Roloff, Jürgen, *Die Offenbarung des Johannes*, Züricher Bibelkommentare,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1).
- Smalley, S. S., *The Revelation of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Apocalypse*, (Grand Rapids, MI: InterVarsity Press, 2005).
- Thompson, Leonard L., *The Book of Revelation. Apocalypse and Empi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 Vanni, U., *L'apocalisse*. Supplementi alla Rivista Biblica 17, (Bologna: EDB, 2001).
- Williamson, Peter S., *Revelation*, Catholic Commentary on Sacred Scripture, (Lakeawanna: BakerAcademic, 2014).

요한 묵시록의 인간 상징

허 규

요한 묵시록은 기원후 1세기 말의 소아시아를 배경으로 기록된 책으로 다양한 상징을 통해 로마의 황제숭배 의식과 그로 인한 박해를 묘사한다. 묵시문화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현실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그에 동조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원론적인 대조로 드러난다. 이와 함께 재앙을 환시로 전하면서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머지 않아 종말이 도래할 것을 알린다.

여러 상징들 중에서 요한 묵시록의 환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 상징이다. 직접적으로 인간과 관련된 표상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행위 그리고 인간과 관련된 폭넓은 상징을 사용하면서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설한다.

인간 상징은 요한 묵시록의 환시 안에서 정점에 서 있으며 종말 이후 전해지는 마지막 환시에서도 사용된다. 인간 상징은 수평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차원에서도 하느님 백성을 전례 공동체로 이해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저자는 박해 받는 신앙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과 다시 오심을 강조한다. 인간 상징과 결합된 전례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전례를 통해 하느님의 백성 안에 현존한다.

주제어: 인간 상징, 환시, 전례 공동체, 황제숭배 의식, 새 예루살렘

Anthropological Symbol in the Revelation of John

Heo, Kyu

The Revelation of John was written in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A.D and in the background of Asia Minor. It describes the Emperor Worship and the persecution of Rome with various Symbols. This actuality is shown in the dualistic contrast of the God and his people, and of the Emperor of Rome and his followers. The book tells the woes in vision and communicates the immediate End of world through the revelation of God.

The anthropological Symbol has a great role among the various Symbols to explain the Vision in the Revelation of John. John used not only human figures directly, but also the life and action and wide symbol of human being in order to interpret theological meaning of the detail of events in history.

The anthropological Symbol stand at culmination of the Vision in the Revelation and is used the last Vision after the End of world. It links to horizontal dimension also to vertical dimension of the people of God in comprehension as the liturgical Community. The Seer emphasizes the existence and the coming of Jesus Christ, the suffered people in the persecution to give the comfort and hope. With the anthropological symbol the liturgical elements is a way of that is revealed the existence of Jesus Christ. He exists in the people of God through the Liturgy.

Key Words: Anthropological Symbol, Vision, Liturgical Community, The Emperor Worship, The New Jerusalem

논문 투고일	2023년 6월 3일
논문 수정일	2023년 8월 6일
논문게재 확정일	2023년 7월 29일
